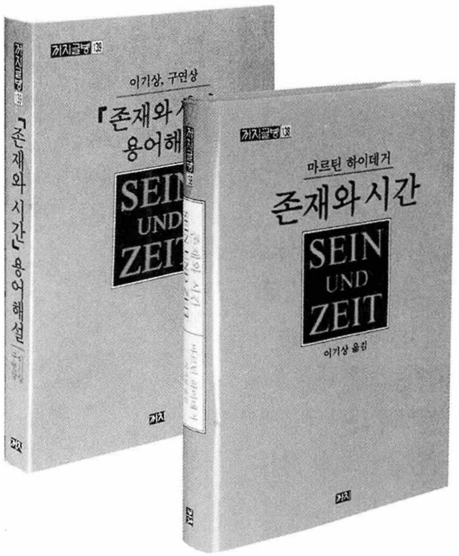
하이데거 철학의 우리말 사유

《존재와 시간》 옮긴 이기상 교수



이기상 교수는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벨기에 루뱅대 신학대에서 처음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를 듣고부터 '현존재'의 개념에 매달리기 시작, 독일 뮌헨 예수회 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기술과 전향》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등을 번역했고,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상》 등 10여권의 하이데거 관련 연구서와 번역서를 펴냈다.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철학적 사유는 시작된다. '나와 세계'를 마주하며 던지는 근원적 물음과 철학적 심연은 맞닿아 있다.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나, 칸트·헤겔·하이데거·비트겐슈타인에 이르기까지 2500년 서양철학사에 우뚝선 여덟 봉우리마다 그 사유의 결정체들이 빛나고 있다. '하이데거'라는 20세기 준령에 도전하기 위해 학문인생을 걸었던 이기상(51,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대철학자의 세기적인 작업으로 꼽히는 《존재와 시간》(까치)을 우리말의 사유로 옮겨놓았다. 《존재와 시간》은 독일인들조차 "왜 독일어로 번역되지 않고 있느냐"는 농담을 할 만큼 하이데거의 전사상을 두루 꿰뚫고 있는 난해한 저서로 꼽힌다.

'고전' 번역은 모든 학문의 기초

"50세가 되기 전까지 하이데거를 우리말로 알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뤄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5년 가까이 강단에서 철학을 강의하며 하이데거 철학을 소개하는 책을 쓰거나 번역했지요. 그 모든 노력도 《존재와 시간》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학문을 처음부터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이데거 철학에서만큼은 최소한 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조그만 자갈이라도 깔겠다는 심정으로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존재와 시간》이 지닌 철학사적 위대성은 과학의 논리가 삶의 문법을 지배하며 과학이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있음을 냉철한 이성비판으로 꿰뚫어보았다는 데 있다. 과학의 족쇄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해방시킴으로써, 삶이 본래 간직한 풍부한 세계를 되살려 놓자는 것이 하이데거의 논지다. 삶을 양식화시키고 수량화함으로써 제어와 지배가 가능하다는 전도된 관계에서 인간세계의 성스러움, 신적인 영역에 대한 사유가 사라져 버렸고, 그것이 근대화의 잘못된 첫단추를 끼운 셈이라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현대는 신이 떠난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다. 우리는 이제 성스러움의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하이데거 철학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존재와 시간》의 핵심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이 수월치 않았음은 물론이다. 기존의 번역본들은 대부분 중역이거나 일본어 번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이교수로 하여금 살아 있는 우리말로 옮겨야 한다는 명분을 부추겼다.

"하이데거의 저서에서 독일어 대 한국어의 사전적인 번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데거는 자신의 개념들을 아무 해설 없이 선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철학사적 배경에서 하이데거가 의도하는 바를 찾아내야 하지요."

《존재와 시간 용어해설》(이기상·구연상 지음)을 묶어낸 것도 하이데거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이교수의 철두철미한 학문적 대결의 결과인 셈이다. 한글전용주의자이기도 한 이교수는 제대로 된 철학사전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이 곧 학문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서양이 자기나라말로 사유하면서부터 '근대정신'을 싹틔웠듯이 우리도 우리말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주체적인 철학이 싹틀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철학을

"시대와 삶을 떠난 철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남의 철학이론을 수입하며 가르치고, 적용해왔지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철학은 바로 '스스로 사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의 일단락을 지은 이교수의 다음 과제도 '철학의 한국화'다. 우선 '문학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 100년의 시대정신이 어떻게 철학의 개념으로 정립돼왔는지 정리해보고, 우리 시대의 대안적 사유는 무엇인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 시대에 맞는 의복과 음식을 만들어가듯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이기상 교수는 생활한복을 고집한다.

평생 하이데거에 몰두해서일까. 이기상 교수는 하이데거와 많은 부분 닮았다. 신부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다 철학자로 돌아선 것도 그렇고, 아들만 둘 둔 것도 그러하며, 강의를 위한 외출 외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사는 점도 그렇다. 25년간 그렇게 하이데거 사유의 숲에서만 지내온 이교수는 자신의 저서와 번역서가 내일의 한국철학을 준비하는 한글세대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에 대한 한국철학의 응답을 이교수가 들려줄 차례라 생각하고 있다. ─ 김지원 기자

화제의 출간

'유학의 현대화' 이룬 한국철학자

《이상은 선생 전집》(전4권) 출간

한국철학의 태두로 꼽히는 경로 이상은(李相殷 1905~76)의 전집이 묶여나왔다. 유학의 현대적 의의를 일생의 학문과제로 삼았던 이상은선생은 "한국의 신유가철학자 1세대의 선구"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학의 현대화'로 집약되는 이상은 선생의 업적 가운데 특히 공자·맹자·고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 퇴계철학 연구는 후학들에게 동양철학의 필독서로 평가받으며 주옥같은 연구물로 여겨져 왔다.

4권 1질로 엮은 이번 전집의 1, 2권에는 한국철학 논문, 3권에는 중국철학 논문, 4권에 〈교수단시국선언문〉을 비롯한 시론과 수필, 번역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수록했다. 특히 지식인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중화민국과 원세개〉라는 논설로 필화사건을 겪기도 하는 등 시대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온 지식인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한국사상사연구회〉에서 기획한 끝에 선보인 이번 전집 출간에 대해 후학들은 "현대의 선비정신과 현대철학의 형성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29-2284)

예문서원/A5신/450면 내외/ 전질 12만원